“ 모든 것이 잠시 지나가는 인생 ” 전도서 인생론 시리즈 6
(전도서 4:13-16)

인생사를 '새옹지마'라는 사자성어로 표현합니다. 이 말의 기원은 중국 어느 한 변방의 국경 지역에 사는 한 노인으로부터 기인한 말입니다. 이 노인에게는 집에서 기르는 한 마리의 말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이 말이 담장을 넘어 멀리 도망쳐 버린것입니다. 위로를 하러 이웃 사람에게 이 노인은, '아 네, 괜찮습니다. 이 일이 좋은 일이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라고 답변을 합니다. 그러다가 몇 달후에 도망갔던 말이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혼자가 아닌 다른 한 마리의 말을 데리고 옵니다. 이웃 사람들이 '복이 왔다'고 기뻐해 줍니다. 그 이 노인은 겸하하게, ' 감사합니 다. 그러나 이 일이 화가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하고 대답합니다. 며칠 후 노인의 아들이 새로 들어온 야생마를 길들이기 위해 훈련을 하다가 그만 그 말에서 떨어져 다리를 크게 다치게 됩니다. 쾌유를 빌기 위해 온 이웃에게 노인은 ' 이 일이 복이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나 얼마 후, 북쪽 오랑케가 들어와 전쟁이 일어납니다. 모든 마을 젊은이는 전쟁터에 나가 크게 부상을 당하거나 죽어서 돌아옵니다. 그러나 노인집 아들은 낙사 다친 이미의 부상으로 전쟁에 나가지 않게 되어 목숨을 건지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인생사가 '새 옹지마'라는 뜻은 변방 새, 늙은이 옹, 조사 지 그리고 말 마의 뜻처럼, 인생이란 좋은 일과 나쁜 일의 변화가 많아 예측할 수 없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행복하다고 해서 자만하지 말고, 힘든 일이 있다고 해서 낙심만 하지 말고 반드시 좋은 일도 올 수 있으니 눈 앞에 벌어지는 결과만을 가지고 인생을 쉽게 판단하지 말라고 하는 교훈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전도자는 우리의 인생을 마치 모자이크 그림과 같이 큰 그림을 알 수 없도록 디자인 하셨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1000개의 작은 퍼즐들을 펼쳐놓고 그림을 맞추는 것과 같습니다. 대형 모자이크 그림도 바로 앞에서는 이 그림이 무슨 그림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천천히 한 발짝 한 발짝 그림에서 멀어질수록 그 그림이 어떤 그림인지를 나중에 알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그렇게 디자인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한 지혜롭고 젊은 가난한 청년이 감옥에 갇히게 됨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모든 억울함을 벗게 되어 그 나라의 왕이 됩니다(13-14절). 인생의 놀라운 반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억울하게 누명을 받아 감옥에서 죽을 날만 기다리는 그가 그 나라의 왕이 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는 모든 지혜를 다해 국정을 잘해 나갔을 것입니다. 전의 고집스럽고 둔한 늙은 왕에 비해 개혁 통치와 민생 통치를 펼쳐 나갔을 것입니다. 본문은 그의 주변에 무수한 자들이 정치의 한자리씩 얻었다고 증거합니다(15-16절). 그러나 또 하나의 반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왕을 기뻐하지 않고 모두가 자신이 그의 뒤를 이어 더욱더 높은 한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악의를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정말로 '새옹지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해 아래서의 모든 일들이 다 헛되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16절하).

그러나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새옹지마와 같은 인생의 조각 조각들을 다 연결해 하나의 가장 멋진 그림을 그려 가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가 믿고 예배를 드리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성공과 실패 그리고 기쁨과 슬픔의 모든 시간 시간을 통해서 한 가지의 가장 귀한 그림을 그리시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룩한 그의 형상인 것입니다.** 비록 저와 여러분의 삶이 내일 일을 자랑할 수 없는 예측 불가한 인생을 살아간다고 해도 우리는 어느 한 찬송의 마지막 가사와 같이, '예수 밖에는 없네'라고 하는 고백이 되어지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인생사 '새옹지마'지만 이 또한 지나가리라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하루 하루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고 힘 있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2024년 표어
“한 영혼을 품어 열매 맺는 생명의 공동체”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백 마리가 있는데
그 중의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아흔아홉 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마태복음 18:12)

일반집회		교회학교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6시	오전 예배부	주일 오전 10시
드림 워십	주일 오전 8시	영아부	주일 오전 12시
글로리 워십	주일 오전 10시	유아부	주일 오전 12시
블레싱 워십	주일 오후 12시	유치부	주일 오전 12시
청년예배	주일 오후 12시	초등부	주일 오전 12시
영어예배	주일 오전 10시	중고등부	주일 오전 12시
수요예배	수요일 저녁 8시	러브미션부	주일 오전 12시
수요중보기도회	수요일 저녁 8시	새나라 한국학교	토요일 오전 9시 30분

유 아 부	최수진 사모 (917)526-1344	1 선 교 회	김성준 목사 (617)949-1118
유 치 부		2 선 교 회	최순성 목사 (917)246-9493
초 등 부	최주안 전도사 (646)662-0691	3 선 교 회	최순성 목사 (917)246-9493
중 고 등 부	손주영 전도사 (917)797-4237	4 선 교 회	이재환 목사 (646)398-0228
러 브 미 션	박명애 전도사 (718)737-1643	5,6선교회	이재환 목사 (646)398-0228
청 년 부	김성준 목사 (617)949-1118	히 스 패 닉	이효성 목사 (646)549-6043
영 어 회 중	폴 김 목사 (201)679-2924	네 팔	다니엘 바스넷 목사 (201)927-0220
행 정	최순성 목사 (917)246-9493	몽 골	투글들 목사 (646)467-2675
양 육	최순성 목사 (917)246-9493	다민족사역	양영란 전도사 (917)533-9511
새 가 족 부	최순성 목사(정) 박수진 전도사(부)	시니어사역	이재환 목사 (646)398-0228
심 방 부	박수진 전도사 (646)642-9331		

단비 기독교TV (타임워너 케이블 채널1487)/ 매주 금요일 저녁 9시(본방송)
토요일 오전 11시(재방송)

2024년 10월 20일

1부 예배 8:00am | 2부 예배 10:00am
드림 워십 인도: 김성준 목사
글로리 워십 인도: 최순성 목사

*경배와 찬양 Worship Song	두나미스 찬양팀
*기원 Invocation	인도자
*성시교독 Responsive Reading	제36번(시편90편) '#36(Psalms 90)'
*신앙고백 Confession of Faith	사도신경 'Apostles'Creed'
찬송 Hymn	새43장(통57) "즐겁게안식할날" 'O Day of Rest and Gladness'
기도 Prayer	김선신 장로 Elder. Sun Shin Kim
성경봉독 Scripture	전도서(Ecclesiastes) 5:1-7
*봉헌 Offering	새213장(통348) "나의 생명 드리니" (1, 4절) 'Take My Life, and Let It Be'
찬양 Anthem	글로리아 찬양대 "내게 강 같은 평화"
설교 Preaching	**"하나님이 받으시는 인생"** "Godly Life" 김학진 목사
*찬송 Hymn	새249장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 완전하신 나의 주"
*축도 Benediction	김학진 목사
공동체 소식 Announcements	

3부 예배 12:00pm
블레싱 워십
인도: 김성준 목사

신앙고백	사도신경
경배와 찬양	블레싱 찬양팀
기도	고형숙 집사
공동체 소식	영상
성경봉독	이사야 6:1-8
*봉헌	"나 무엇과도 주님을"
설교	**"하나님이 받으시기 합당한 찬양"** 김성준 목사
찬양	"더원합니다/범이나낮이나"
축도	김성준 목사

(* 표는 가능하면 일어나심 / Stand if able)